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계명대 홍정희와 긴조9호

타카워 혀를 찾지만 나는 또다시 몸이 뽕뽕 묶여 일제 때부터 소문난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래도 오히려 기뻐던 것은 같은 신세로 이 교도소 저 감방에 떠돌던 이강철 현 청와대시 민사회수석과 임구호 등 인혁당 선배들, 정화영 동지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목포에서 유상덕, 유영표가 몇 달 만에 나가버리고, 문동환 목사님, 신동수, 설훈 동지 등이 잠시 다녀갈 뿐 혼자 보내는 외로운 감옥살이가 몹시 힘들기만 하였다. 그런데 대전에 오니 인혁당 멤버뿐만 아니라 임채정, 이부영님과 내가 사랑하는 권운상 국민대 후배, 조금 있으니 동교동 김홍일, 한화갑, 김옥두님을 비롯 김대중 선생님의 동생까지, 대한민국 정치범의 총집합소가 되어 영켜살게 되니 오히려 행복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8년여 투옥살이로 심신이 힘들어진 이강철(당시35세), 정화영, 임구호(당시34세) 동지와는 지금도 변함없는 우정을 누리고 있다.

박정희 영구집권 획책에 따른 유신철폐 군사독재, 5.18광주학살자인 전두환 군사독재,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반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확실하게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 민주·평화통일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청학련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민주로 로 민 의 새 로

민청학련 사건은 반독재민주화와 평화적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고 일어난 애국청년투쟁활동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웬지 분열되고 분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제 우리들의 힘과 뜻과 의지를 다시 모을 때가 되었다.

대부분의 민청세대는 50대를 넘어 서서히 6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그간의 경험과 투쟁력과 지혜들을 공유하되 자신을 비우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지원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할 때이다. 주변 강대국들의 각양각색의 도전들, 아직도 계속되는 분단의 아픔, 반민주성에 따른 사회 분열을, 우리들 민청세대가 아우르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장·청 민주세력이 총단결하는 시대, 꺾테기는 가고 민족·민주·평화통일 세력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통성의 시대를 위하여, 조국의 제단 위에 우리 모두를 던지자! 민청학련이 오늘의 역사에 기여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더냐!



백현국_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68학번. 진광고등학교 영어 교사, 진성교역 대표, 웅지학원 원장, 고신중학교 영어교사(현)

1976년 6월 나는 평소와 같이 첫 임신을 한 아내의 배움을 받으며 도시락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와 길모퉁이를 돌아섰다. 지금은 아파트로 변해버린 파밭을 지나는 순간 건장한 세 명의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검은 짚차에 태워졌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앞산 중앙정보부 대구 분실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유서를 작성하고 취조실로 들어 설 때까지 그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나는 이미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 취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다. 이미 69년도에 삼선개헌 반대시위를 주도하다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구속된 경험이 있으므로 취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했다. 발가벗긴 채 형사가 던져준 흰 종이에 그 순간부터 기억나는 순간까지 과거로 돌아가 나의 기록을 적으라는 요구를 듣는 순간 '홍정희 동지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으로 한일회담 무효시위를 주도하다가 처벌 받았던 적이 있으며 68년 계명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삼선개헌 반대시위를 주도하여 구속되었다. 당시 대구에는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이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며 영남대학교는 신설(대구대와 청구대 합병)된 대학으로 학생운동의 토대가 미약했다. 그 당시 계명대학은 최이수, 임종호, 김홍주,

문호열 등이 중심이 되어 아마도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치열한 삼선개헌 반대시위가 열렸을 것이다. 69년 12월 내가 석방되던 날 우리는 좀더 장기적으로 조직적 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홍정회'를 결성했다. 경북대학의 '정진회' 등이 당시 치열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심각한 희생을 치렀다. 계명대의 홍정회는 '삼선 개헌 반대', '교련반대' 시위를 조직적으로 이끌었고 나와 임종호, 김홍주 등 세명이 정치집회를 했다고 제적처분을 받았다. 그 뒤 대구시 삼덕동에 '동학전'이라는 학사 주점을 만들고 봉덕동에 '홍정어학교'를 설립하여 사회민주화와 통일 운동을 전개했다. 이 당시에 만난 해병대 현역이었던 서성교는 평범한 인생을 버리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삶을 희생해 오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역사인식과 의식화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지속적인 후배 양성을 위해 매월 한 두 차례 교양학습을 했었는데, '홍정회'는 자생적 조직으로 연계조직이 없어 독자적인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학습 자료는 미국에 계셨던 누님을 통해 일본이나 미국의 출판물을 사용했으며 타 대학의 학습 자료나 시위 유인물 등을 이용했다. 그리고 학습장소는 나의 집과 서성교의 집, ब्ल로동 헛집 등이었다. 그리고 내가 진량고등학교에 근무하게 된 후에는 학교 숙직실을 이용해 유인물 등사도 학교 비품을 사용했다. 심각한 내용은 칠곡 신동에 있는 나환자촌 분교에서 등사를 했다.

1973년, 74년 경에는 경북대학 정화영, 여석동 등과 관계를 맺으며 그 당시 늦게 운동권에 합류한 이강철과 민청학련 관계를 협의했다. 그때 나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 뒤라 재학생이었던 김영우를 맺어주었으나 계명대학은 불발로 끝나게 되어 희생자가 없었다. 이런 관계로 76년 긴급조치9호로 구속될 때까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중앙정보부 프락치였던 '배○○'이 우리 홍정회 조직에 침투했고 나의 집 전화를 수년 간에 걸쳐 도청, 녹음해 두었다. 1976년 4월과 5월, 우리는 본격적으로 계명대학 교수들을 접촉하여 학습에 동참시켰고 서울에서 행해졌던 각종 시위 유인물을 복사하여 시내버스나 고층건물 옥상을 이용해 살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유인물이 서울대 김상진 열사의 유서였다.

60일이 넘는 고문을 거쳐 그들이 처음 노렸던 학생간첩단 혐의는 풀렸으나 나는 반공법 위반 및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그리고 후배 서태열, 장의식, 서석국, 김진태, 강봉기는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특히 군복무 중이었던 서석국, 김진태, 강봉기는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었

다. 나는 대구 교도소 2사하(모스크바 사방) 독방에서 햇수로 3년간 진실로 맑은 영혼과 불같은 행동력을 지닌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북에서 내려온 최하중, 김동기 선생 그리고 광주의 윤한봉, 최열, 강기중, 서울대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서승 씨, 홍정회의 귀중한 지원자셨던 부산의 최성목 목사님 등,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분들이다. 79년 박정희 시해 이후 80년 5.18로 구속될 때까지, 나는 요즈음도 드물게 악몽을 꾸곤 한다. 세차례에 걸친 구속과 고문 수사를 겪으며 당했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69년 대공분실, 76년 중앙정보부, 80년 합동수사본부 그 중에서도 80년 합수부 고문은 사람이 동물보다도 생명력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어쨌든 76년 중앙정보부 대구분실에서의 고문 수사를 통하여 나와 관계가 있거나 홍정회에 가입한 수십 명이 수사를 받았고 상당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리에 백현국이 간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잠재의식을 가지게 했다.

나는 76년 구속되기 전에도 모교 동문회나 MIT, 소규모 모임 등에 초청되어 사회적인 현안 문제 등을 강의하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월남은 패망한 것이 아니라 민족 통일을 이룬 것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반공법 위반의 빌미가 되었다. 고모님 한 분이 제일동포 조총련이셨는데 서신왕태가 있었고 이것이 공산주의 이념물을 가지게 된 바탕 중의 하나였다고 수사관들은 주장했다. 결국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삼 개월 간 가족 면회가 금지되었다. 나는 긴급조치9호 위반에 반공법 위반이 병합되어 교도소 내 '전향공작 전담반'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향서를 쓰라고 강요했으며 심지어는 가족 특별면회를 시켜 주며 협박했다. 미국에 계시는 누님도 불온문서를 제공한 혐의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도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내가 왜 '빨갱이'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조사하겠다고.

그러나 대구지역에만 국한되었던 우리 홍정회사건이 가족들과 최이수, 서성교 등 홍정회 회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제 엠네스티에 보고되었고 부산 중부교회 최성목 목사님이 내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우리는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매월 엠네스티에서 보내오는 영치금은 2사하의 모든 분들과 공동 영치금으로 사용했다. 당시 우리 사동에서 면회가 있거나 영치물이 차입되는 경우는 서승 씨와 나 뿐이었다. 독방에서 영치물을 나누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간수나 봉사원들을 통하여 분배가 가능했는데 '석구봉'이라는 가짜 스님이 이를 신

고하여 고초를 겪기도 했다. 석구봉은 가짜스님으로 비구니 자매를 겁탈하고 간첩으로 무고 행위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른 악랄한 놈이었는데 어린 죄수를 성추행하다가 징벌로 우리 사동까지 오게 됐다. 이놈에 얽힌 에피소드도 참 많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 법원에서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되었음을 알았고 그 사실이 우리 사동에 알려지자 장기수 어른들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리가족과 동지들도 합의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통방을 통하여 석구봉은 그 이름이 좋지 않다고 주절거렸다. 어쨌든 첫째는 백두산, 둘째는 백태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최열, 윤한봉, 강기종 등 민청학련에 연루된 친구들이 이감되어 왔고 이들이 온 뒤로 2사하는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때까지 없었던 운동시간을 요구하는 단식이 일 주일 씩 벌어지고 드디어 하루 삼십 분씩 운동이 허락되었다. 그래도 견딜 만한 교도소 생활이었다.

그동안 출소한 후배들과 밖에서 노심초사했던 동지들은 최성묵 목사님과 더불어 더욱 강한 반독재, 통일 염원을 가꾸었으며 내가 출소한 이후 계명대 후배인 임진호, 김군식, 권오국, 배설남, 배희진 그리고 경북대 한종호, 하종호, 영남대 이태현, 추연창 등과 접촉하며 엠네스티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러던 중 임종호는 부마사태 때 최성묵 목사와의 통화가 도청이 되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최성묵 목사는 부산에서 체포되어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 우리는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박정희가 시해되어 두 사람은 풀려나고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출소 때까지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에 걸려 감호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에 직송되어 심사를 받은 후 주거제한 처분을 받고 80년 구속 이후 98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았다. 80년 이후의 일들은 아마도 또다시 서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현재 나는 '대구 경북 통일연대 상임대표', '5.18 민중항쟁 대구경북 동지회장', '대구경북 민주화운동정신 계승사업회 고문' 등을 맡아 재야에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있는 비열한 옛 동지들을 비롯하며...

담밖에서 싸우고 담안에서도 싸우고

전국대학생연맹사건(세칭 명동성당 학생사건) 옥중투쟁기



선경식_ 한국외대 행정학과 68학번, 언론노동조합연맹(인노련) 조직국장, 중앙일보 <월간중앙> 부장, 노동일보 편집국장, 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현)

우리들은 1975년 초여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일번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5월 말, 6월 초에 걸쳐 중앙정보부에서 혹독한 수사를 받은 뒤끝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처음에는 전국대학생연맹(세칭 명동성당학생사건)을 민청학련보다 더 큰 조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조직 규모나 성격 등을 놓고 일치락 뒤치락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번이나 조서 내용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는 당초 우리 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힘들자 다음에는 김대중 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 우리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시인할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들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7인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독방에 수용됐다. 심지연(서울대 대학원), 한경남(고려대), 이명준(중앙대), 박홍석(서울대), 김용석(연세대), 조성우(고려대), 선경식(한국외대)이 바로 그들이었다. 온갖 고문에 시달린 터라 독방일지라도 구치소 감방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온 우리들은 결코 유신정권에 굴복할